

북평원이 펼쳐진 화동중곡 녹음의 향연

화동중곡 국가 풍경구는 북쪽으로 목격계 남단에서 남쪽의 대동시 북쪽 경계에 이르는 138,368 헥타르에 이르는 풍경구로, 화련현의 수림량, 수풍량, 봉림진, 광복량, 망영량, 서수량, 덕계량, 옥리진, 부리량, 대동현의 지상량, 관산진, 녹야량, 해당량, 비남량, 연평량 등 15 개의 향과 진이 이에 포함된다. 좁고 길게 늘 골짜기 안에 화련계, 수고안계, 비남계 등 삼대 수계가 만나 폭포, 온천, 협곡, 하안단구, 약지 등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여 독특한 자연경관이 풍부하다.

달고 푸른 하늘,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신선한 공기과 순박한 인심이 어우러진 이 수려한 정경 속에는 아미족, 태로각족, 비남족, 포농족, 샹기래아족, 새덕극족 등의 원주민과 개가 면족, 먼안 면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다원화된 문화적 매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 잉어담 풍경구

잉어담 풍경구는 아름다운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휴양시설도 풍부하다.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자전거로 호수를 둘러볼 수 있으며 산책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여름 밤에는 정점이 반짝이는 반딧불이 진전한 수면 위에 반사되어 비치는 독특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마태안 습지

마태안(vataan)은 아미족어로 꿈을 뜻한다. 이 습지는 내륙형 습지로 낮은 지형에 샘물이 솟아 형성되었다. 부동계가 이 습지를 지나며 우수한 생명체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연꽃만을 위한 연못도 따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연꽃이 만개하여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 임전산 임업문화원

임전산은 목재로 흥성했던 산간도시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는 "작은 상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화했던 곳이다. 정부의 벌목금지정책 시행으로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잘 보존된 원시림과 과거 벌목에 사용되던 설비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색다른 감흥을 준다.



>> 복회귀선 기념비

화련 서수항 무학촌에 위치한 복회귀선 기념비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탑과 반원형의 아치형 몸체로 이루어져 마치 고고한 한 마리 학과 같은 형상을 띤다. 기념비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초록의 잔디와 형형색색의 화초들로 잘 꾸며져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 안동온천

안동온천은 영기성 탄산온천으로 수온이 60~70°C 정도이고 온천수는 투명하고 무색을 띠며 약간의 유황 냄새가 난다. 안동계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치가 매우 수려하여 초기에는 노천 온천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영암해고고 있는 온천장들이 고전적인 건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또 다른 특색을 이룬다.



>> 육십석산

매년 7, 8월 금침화가 만개하는 계절이 오면 황금빛 꽃바다에 구불구불하게 난 하얀 오솔길, 드문드문 있는 농가, 마치 유럽의 전원풍경과 같은 이 정경은 육십석산으로 인해 더욱 돋보인다. 다른 계절에도 끝없이 펼쳐진 녹지와 둘러싼 산들 속에 피어나는 운우, 맑고 새파란 하늘이 마치 천상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서정적인 경치를 선사한다.



>> 나산 휴양지

나산은 해안산맥 옆에 위치하며 객가 민족이 주로 거주한다. 이곳의 명소는 나산폭포와 나산 진흙화산이 있다. 나산 폭포의 웅장한 기세는 먼 곳에서도 그 웅성한 물줄기를 볼 수 있으며, 진흙화산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으로 명승에서 진흙이 솟아올라오는 특이한 현상이다.



>> 대파지

층층 겹겹이 이어진 산과 두동실 떠있는 흰구름을 배경으로 대파지는 고요하고 당당한 운치를 자아낸다. 천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태자원도 풍부하다. 호수 둘레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 관산진 자전거 도로

이 자전거 도로는 국내 제 1호 환진 자전거 도로로 전 구간을 달리면 관산진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과 같다. 약 1시간이 걸리는 이 구간을 달리며 농경지와 수로, 철로, 산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주변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 녹야고대

녹야고대는 높은 고지에 위치하며 시야가 넓어 패러글라이딩에 적합하다. 이곳은 또한 대만의 중요한 첫 열 생산지로 넓게 펼쳐진 차밭과 농경지가 마치 대지에 푸른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과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 홍업온천

이곳의 수질은 무색무미하며 수온은 60~70°C 정도이다. 일제시대부터 유명했던 영소로 지금도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당시의 일식 목조 건축물은 이곳의 가장 큰 특색이다. 가지런히 배열된 다다미와 밝고 깨끗한 긴 복도는 동양의 정취가 물씬 풍겨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 이갈악지

산세가 험난하고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이갈악지는 대동 지역의 특이한 지형이다. 침수성과 통기성이 열악하여 이 악지에서는 식물이 성장할 수 없으며, 장기간의 빗물의 침식으로 빗줄기 형태의 침식된 흉을 볼 수 있다.

